

Blinded Coincidence.

June 3 – July 1 2016

빛겨간 우연 • 김태윤



Taeyoon Kim

빛겨간 우연 Blinded Coincidence

전시 기간	2016년 6월 3일(금) - 7월 1일(금)
관람 시간	화요일 - 일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전시 장소	원앤제이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31-14 / 02-745-1644)
참여 작가	김태윤
웹사이트	www.oneandj.com/

고화질 이미지 다운로드

www.webhard.co.kr ID oneandj | PW 1644

GUEST폴더 > 내리기 전용 > 빛겨간 우연 Blinded Coincidence, June 3 - July 1, 2016 (PW 1234)

원앤제이갤러리는 오는 2016년 6월 3일부터 7월 1일까지 영상, 조각 등 다양한 설치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에서 거주 및 활동 중인 김태윤 작가의 개인전으로, 그의 이전 전시가 영상과 프린트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한 단계 심도 있는 실험적인 매체를 다룸으로써 관객들에게 시간의 흐름을 내포한 주변의 움직임, 그리고 그 흐름을 매듭짓는 역할을 하는 크고 작은 조각들을 통해 훨씬 더 시각적으로 다가간다.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따라 각자 체감하는 시간의 속도와 흐름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시간은 1분 60초, 1일 24시간과 같이 이미 정해진 특정 단위로 계산 될 수 있으나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변화하는 움직임을 통해 가시화되는데 한 사람이 마주하는 시간의 흐름은 타인의 시간의 흐름과 유연하게 섞이거나 나뉘어짐을 반복하며 흐른다.

김태윤은 시간의 흐름을 내포한 주변의 움직임들을 영상으로 담아낸 후 반복되는 비디오 루프를 통해 영상 속 시간을 선형적인 형태에서 순환적인 형태로 변화 시킨다. 불규칙하게 순환하는 영상들은 여러 개의 화면에 동시에 상영되었을 때 우연한 만남과 충돌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영상의 흐름에 파장이 일어난다.

네모 난 화면 속 끊임없이 반영되는 수 많은 움직임들은 모니터 밖에 놓여진 다양한 형태와 색, 질감을 갖은 여러 개의 조각들과 함께 놓여진다. 조각의 형태는 공통적으로 반복적인 노동에 의해 높이 또는 부피를 축적하고 있으며 입혀진 색은 일상의 풍경에서 접하는 색과는 상반된 다소 인위적인 색을 띄고 있다. 이는 작가가 모니터 스크린에 반영되는 빛으로 만들어진 색의 영향을 받아 각각의 색을 구현하였기 때문이다. 공간을 분리 시키는 높고 낮은 수직의 형태, 공간을 제어하는 크고 작은 덩어리의 형태로 이루어진 조각들은 영상 속 순환의 흐름의 통로가 되거나 그 흐름을 매듭 짓는 역할을 수행한다.

끊임 없이 움직이는 것과 부동 하는 것이 만나 생기는 새로운 운율은 또 다른 신호의 진원지가 된다. 영상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의 상태 즉 가상의 시간을 현시하며, 진행이 멈춘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는 조각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모든 대화가 그렇듯 이들의 대화는 매번 순조롭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 어떠한 충돌로 인해 멀리 자리하기도 하고 일정한 거리에서 대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상과 조각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우연적인 순간들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불분명 하게 만든다.

큐레이터 이경민

One's sense of the passage and lapse of time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at of another. While time can be measured in specific and predetermined units — One minute equals sixty seconds or one day is twenty-four hours — the feeling is relative. Time is visualized through changing movements and the passage of time facing one person is continuously mixed with or separated from another person's perception of time.

Taeyoon Kim captures in his videos those movements embodying lapses of time. Through repeated video loops, he transforms the time captured from a linear form to the circular. When irregularly circulating videos are played simultaneously, they generate coincidental encounters and collisions resulting in the changing flow of the underlying videos.

A large number of endless movements reflected on a rectangular screen are placed together with several sculptures of various shapes, colors, and textures. The sculptures in this exhibition were creat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repetitive acts of labor. The coated colors of the sculptures appear rather artificial and not those that we come across in our daily surroundings. The colors were chosen based on the shade of lights projected on a monitor. The sculptures, ranging from short and tall vertical shapes, divide the space to form small and large clusters. These sculptures in turn become either a channel for the circular flow in the videos or work to terminate such flow.

The meeting of the incessantly moving elements together with the immobile element of the sculptural installation serves as the epicenter of yet another signal. This meeting engenders its own types of rhythm. The videos reveal an imaginary time, a state of infinity with no beginning or end, and when in dialogue with the sculptures embody some traces of the cessation of time's progression. Like all other conversations, these do not always go smoothly. These are positioned far away from each other and are the result of collisions at a certain distance. Nevertheless, coincidental moment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videos and sculptures blur the distinction between reality and the imagined.

Kyungmin Lee, Curator

Translate by Rachel Lee



김태운

순응자 *Conformist*

2016

PVC pipe, Paper Clay, Oil Clay, Acrylic

110 x 140 x 190cm



김태운

절름발이 Cripple

2016

Epoxy Resin, Acrylic

46 x 17 x 175cm